

일본어와 일본사회

# 일본의 종교와 신도

22458419  
하야시 유즈카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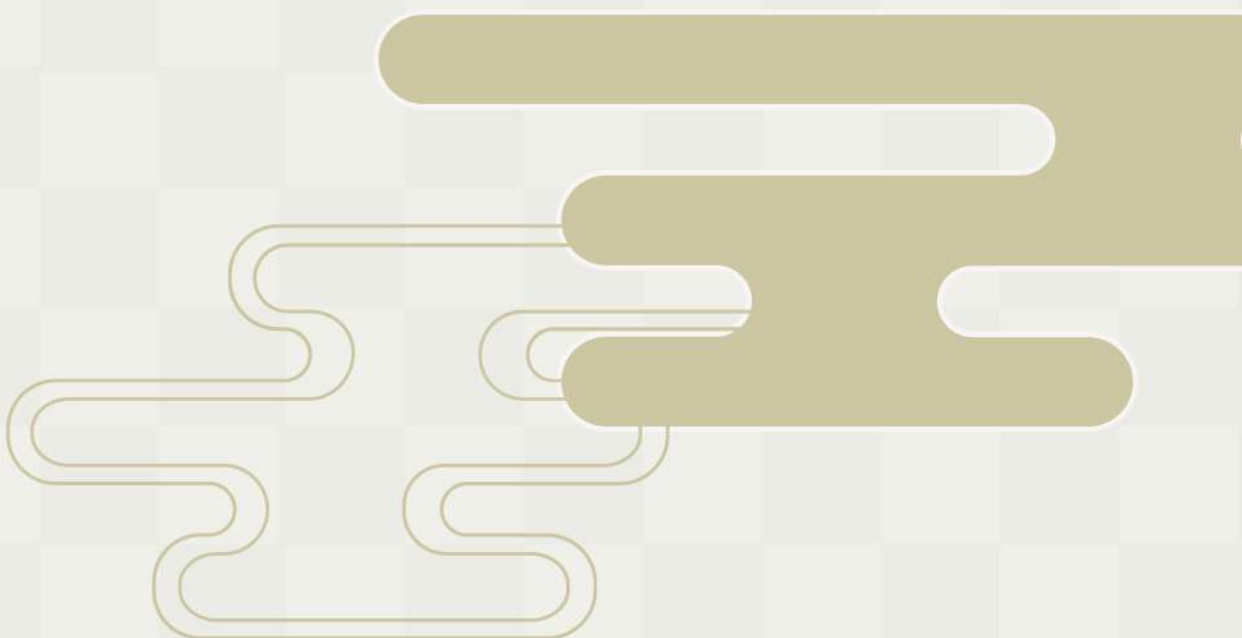
一、일본의 종교 비중

二、일본인의 종교관

三、신도란

四、신도와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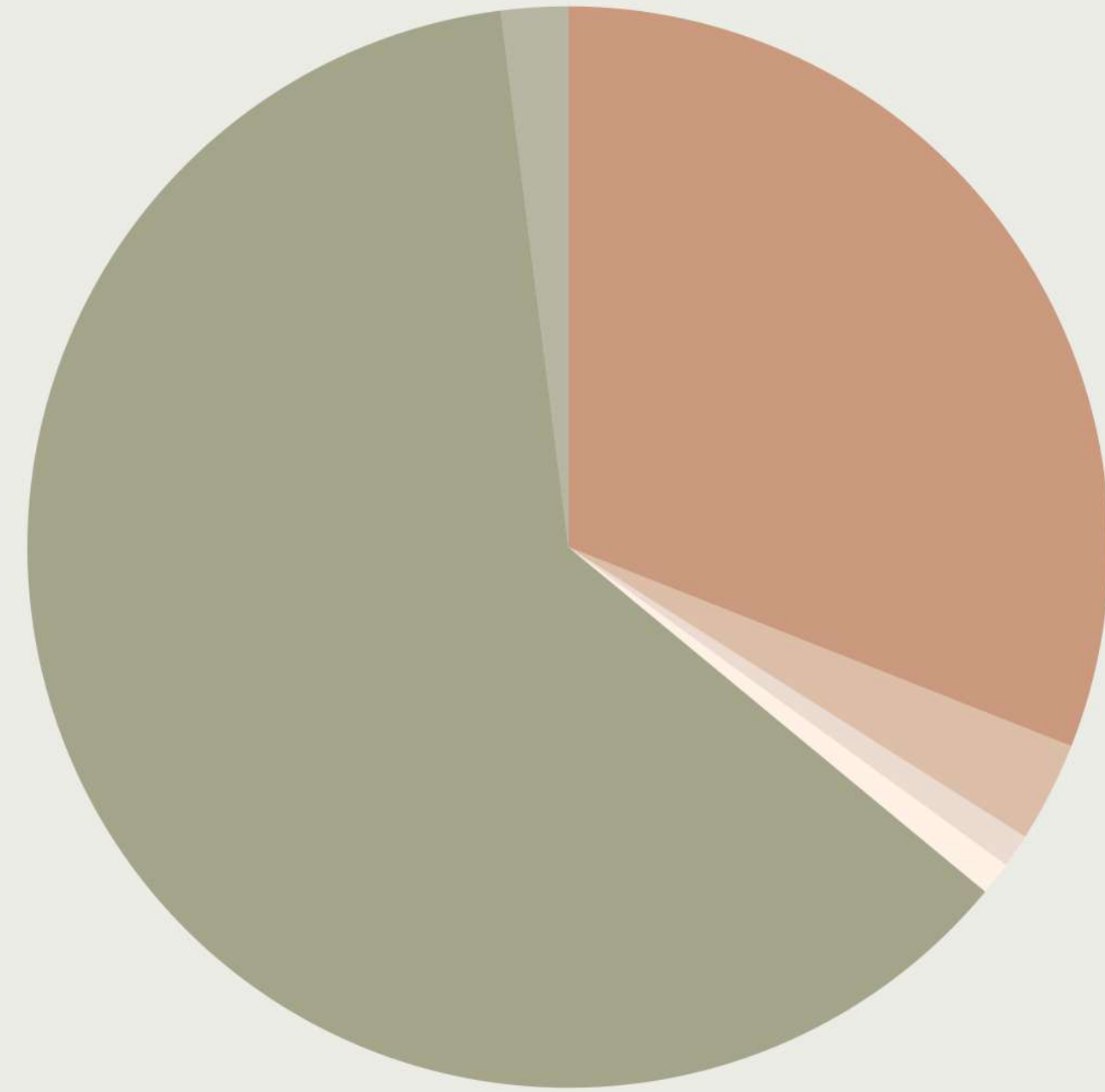
五、올바른 참배 방법



행복의

정력적 가치

# 일본의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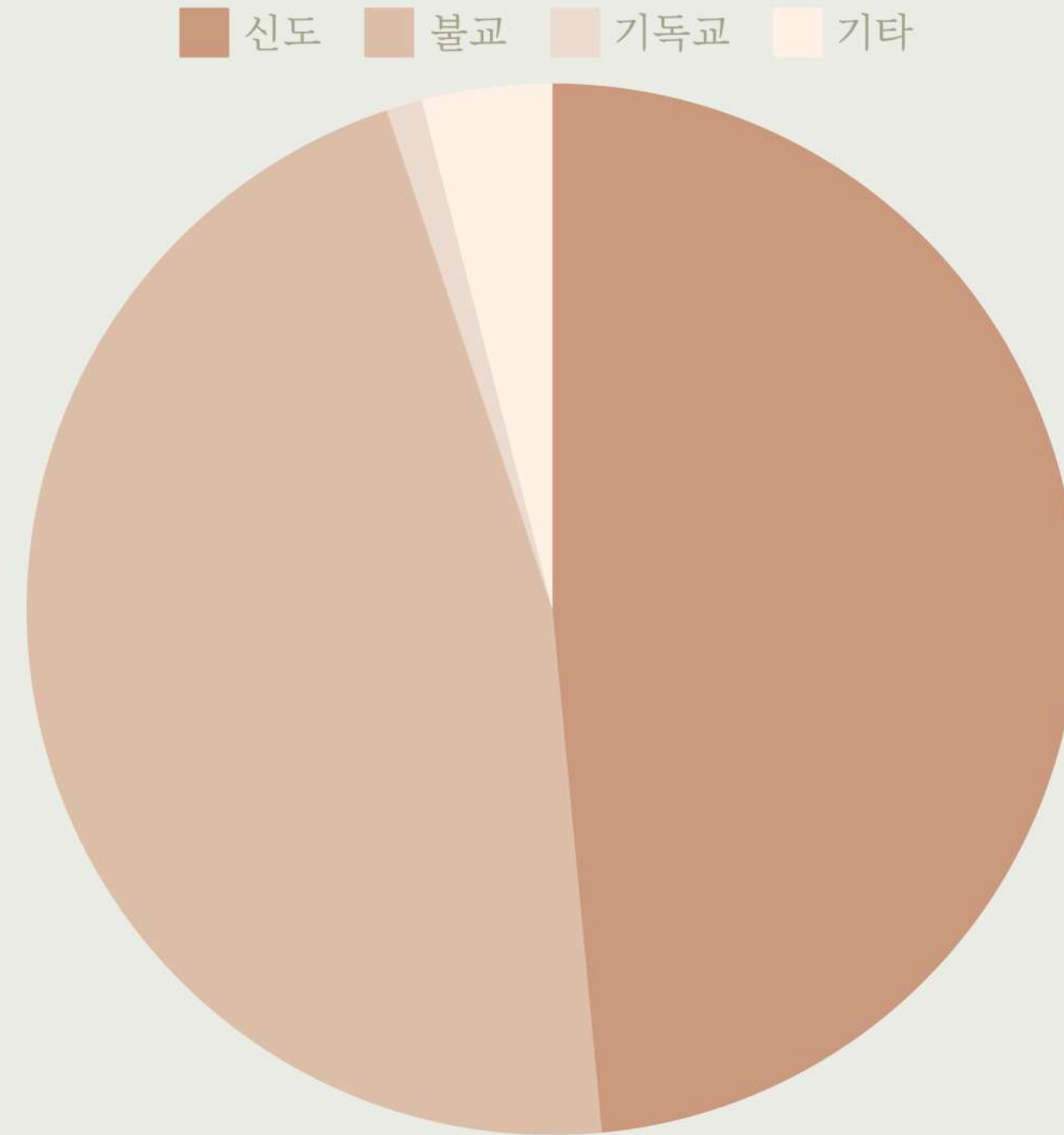


불교	31%	신도	3%
기독교	1%	기타	1%
무교	62%	무응답	2%

(2018년 NHK조사)

# 일본의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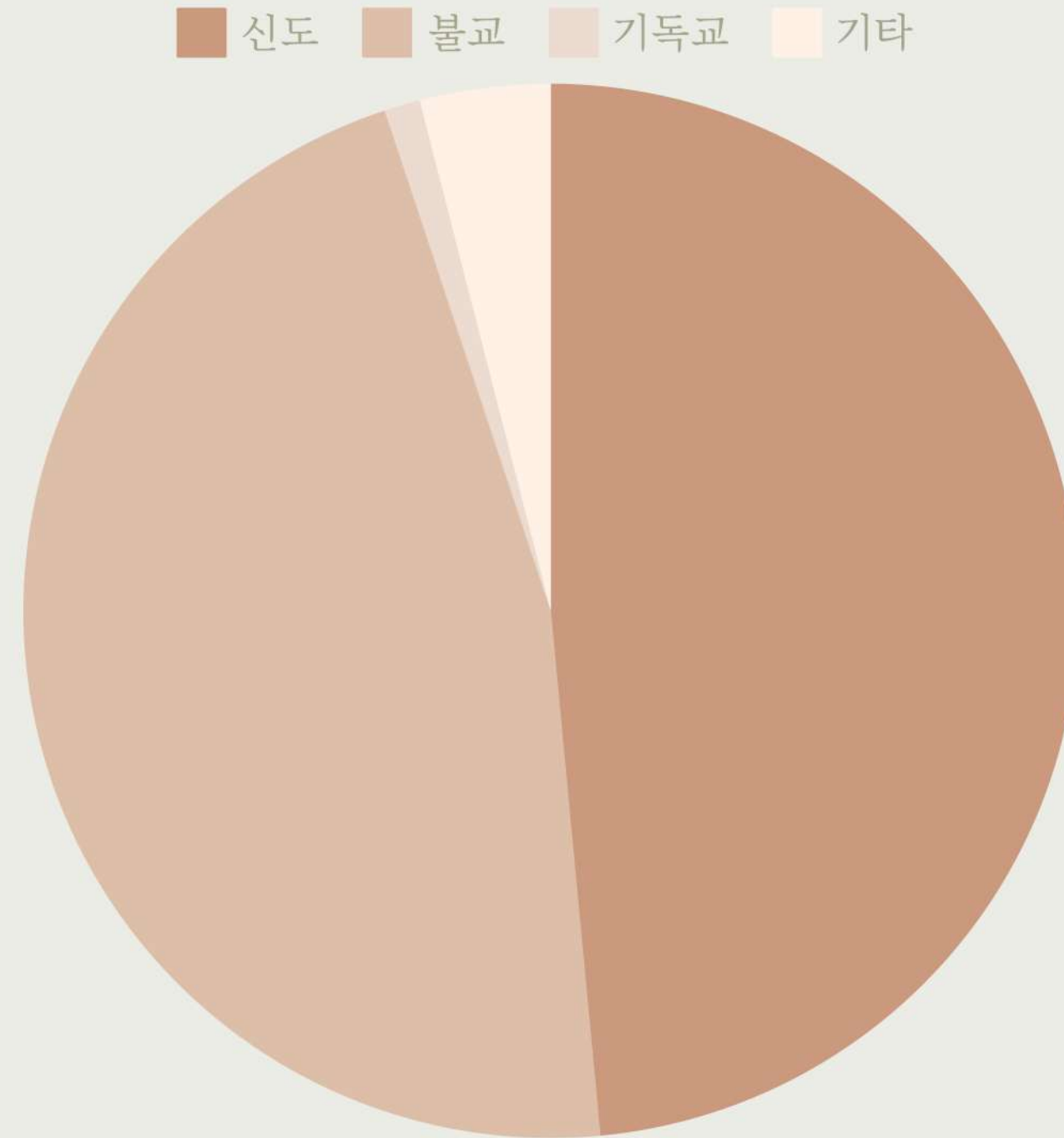
신도 8792만4087명  
불교 8397만1139명  
기독교 191만5294명  
기타 733만5572명  
총 1억8114만6092명  
(문화청『종교연감』2021년)



# 일본의 종교

종교 신자 수는 총 1억 8114만 6092명으로 일본 총인구 약 1억 2600만명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여러 종교의 '신인'으로 꼽히고 있는 국민이 있게 된다.



행복의  
정답

# 일본인과 종교

- 일본은 무교가 많다
- 일본인은 무교가 많지만 무신론자는 아니다
- 일본에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새해에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한다
- 일본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은 거의 불교와 신도를 믿고 있다
- 일본에서는 불교와 신도를 동시에 믿는 사람도 많다





# 신도란

# 신도란?

- 일본의 민족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민족종교
- 교주나 경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 조상숭배나 자연숭배가 기본이고 ‘팔백만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신을 숭배
- 천황은 800만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격을 지닌 ‘아마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의 후예로 여겨지고 있다
- 죽은 사람은 가족을 지켜보는 조상신이 되어 사후세계에서 가족과 후손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불교  
신도와

# 신도(神道)

신도(神道)는 고대 일본에 뿌리내린 종교로 일명 유신도(惟神道)라고 한다. 교전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창창자나 개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에 신이 깃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800만의 신을 신앙하는 다신교이다. 자연과 사물, 위인 등 여러 가지가 신으로 모셔져 있다.

# 불교(佛敎)

불교는 인도를 발상지로 하여 중국에 전해지자 많은 종파가 성립되었고, 그 후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에 전해지고 나서는 전통 불교의 종파인 십삼종을 비롯하여 여러 종파가 생겨났다.

각 종파에서 본존이나 교의에 차이가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거듭하고 깨달음을 얻는 데 목적을 둔 점은 같다.

# 신앙 대상

## • 신도

신도에서는 800만의 신을 신앙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태양이나 물, 번개 등 다양한 것에 신이 깃든다고 생각되어 왔다. 경외, 신으로 모심으로써 일본인은 자연과 오랫동안 함께 해 왔다.

# 신앙 대상

## • 불교

불교에는 본래 신앙 대상이 없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 전해 온 불교의 대부분은 부처(석가여래)나 보살을 믿는 대승불교다. 깨달음의 길은 매우 엄격하여 누구에게나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 구제를 바라는 것으로서 일본에 전해졌다.

# 목적

## • 신도

신도에서는 신을 모시고 정직한 정신으로 있어야 신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사람들은 신의 가호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신에게는 황혼(荒魂)으로서의 측면도 있어, 천재지변이나 역병, 재해로서 경외되어 왔다. 사람들은 황혼(荒魂)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신을 모신다. 온갖 것을 신으로 삼는 일본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은혜를 얻는다는 목적이거나 천재를 진정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 목적

## • 불교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쌓는다. 그 목적은 해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탈은 욕도를 벗어나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윤회란 생명이 있는 것이 여러 번 환생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등도 포함한 생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불교에서는 윤회전생의 고리에서 벗어나 극락정토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해탈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성직자

- 신도

신도에서 성직자는 신주(神主)와 무녀(巫女)다. 신사를 섬기며 기도와 사무를 행한다.



# 성직자

- 불교

불교에서 성직자는 승려(주지, 스님), 비구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설파하고 근행을 행한다.



# 건물

신도...신사



불교...절



# 결혼식

신도...신전식(神前式)



불교...불전식(仏前式)



# 장례식

신도...신장제(神葬祭)



불교...불교장(佛教葬)



# 신사의 새전

신사에서 새전은, 신에 대한 ‘답례’의 의미가 있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복을 받았을 때, 그러한 평소의 감사를 전할 때 바치는 돈이다. 옛날 농경민족이었던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벼농사 수확에 감사하며 신에게 쌀 등을 바쳤다.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러 화폐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돈을 바치도록 변했다. 즉 새전은 답례의 공물 대신이라는 것이다.

# 절의 새전

절에서의 새전은 신사와는 달리, ‘시주’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시주란 자신의 재물을 맡겨 마음과 영혼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다. 그래야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하나로 여겨진다. 새전을 넣는 것은 자신의 돈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번뇌를 버리고 수행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절의 새전

시주는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부터 있었고 그때까지 돈이 아닌 음식이나 의복 등을 시주했다. 불교에서도 시대가 진행되고 '화폐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돈이 쓰이게 되었다.

오피스  
투데이

참배방법

참배방  
법  
을바  
른  
신사  
의

을바  
른  
참배  
방  
법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도리이(鳥居)를 지나기 전에 절을 한다

도리이(鳥居)는 신사 밖과 안을 나누는 의미가 있다고 하며, 여기에서 안은 신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윗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듯한 기분으로 절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정중한 동작이고 참배를 마치고 퇴출할 때도 돌아서서 인사하는 것이 좋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참배길(参道)은 가운데를 피해서 걷는다

참배길 가운데는 정중(正中)이라고 불리며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한다. 여기를 피해서 조금 좌우로 들러서 걷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가로지를 때는 가볍게 절을 하거나, 또는 중앙에서 신전을 향해 절을 하는 것도 경의의 표현이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초즈야(手水舎)에서 손과 입을 씻는다

배전 등 참배하는 장소에 가까워지면 초즈야(手水舎)가 있을 것이다. 이 곳은 물로 미소기(禊)를 해서 ‘심신을 맑게 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

※ 미소기(禊) : 몸 전체를 씻어서 정화하는 신토의 관습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초즈야(手水舎)에서 손과 입을 씻는다

1. 손수건 등을 꺼내기 쉬운 곳에 준비한 후,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물을 떠서, 왼손을 씻는다. 씻은 물이, 물반(깨끗한 물이 쌓여 있는 곳) 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사용하는 물은 하나의 동작마다 1/3이 기준이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초즈야(手水舎)에서 손과 입을 씻는다

2.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씻는다.
3.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 손바닥에 물을 받아 입을 헹군다.

※ 국자에 직접 입을 대지 않는다. 물을 머금을 때는 무릎을 굽히고 왼손으로 입가를 가려주면 좋다. 물의 상태에 따라 물을 입에 넣는 것에 저항이 있는 경우, 무리하게 실시할 필요는 없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초즈야(手水舎)에서 손과 입을 씻는다

4. 국자를 일으켜 남은 물이 자루(손잡이)에 흐르도록 하여 자루를 씻는다.
5. 원래 있던 장소에 옆드려 되돌린다.  
※ 이상을 한 잔의 물로 끝내는 것이 아름다운 동작이고 물을 pingping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해야 한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 방울을 울린다

새전함(賽錢箱) 위에 방울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울린다. 그 음색으로 참배자를 맑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먼저 방울을 울려 참배할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 후 새전함(賽錢箱)에 새전을 넣는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새전함(賽錢箱)에 새전을 넣는다

던져 넣는 것으로 더러움(게가레 穢れ)을 벗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강하게 던질 필요는 없고, 진심을 다해 정중하게 넣는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 2례 2박수 1례 (二礼二拍手一礼)

2례 2박수 1례(二礼二拍手一礼)가, 현재 참배의 기본예절이다.

신사에 따라서는 박수 횟수가 다른 곳도 있다. 방법이 적혀 있는 간판이 있으면 따라하는 것이 좋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 2례 2박수 1례 (二礼二拍手一礼)

1. 한번 자세를 바로잡고 깊은 절을 두 번 한다.
2. 가슴높이에서 오른손을 약간 당겨 손을 맞댄다. 어깨 너비 정도로 양손을 벌리고 두 번 손뼉을 친다.
3. 손을 꼭 모으고 정성껏 기도한다.
4. 깊은 절을 하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고슈인(御朱印)은 참배 후에 받는다

고슈인(御朱印)은 참배한 증표와 같으므로 참배한 후에 받아야 한다.

기념 스탬프가 아니기 때문에 노트 등에 부탁해서는 안 된다. 미리 고슈인초(御朱印帳)을 준비해 두면 좋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오마모리(お守り)도 참배 후에 받는다

고슈인(御朱印)과 마찬가지로 참배를 마친 뒤에 사야 한다.

1년간 가호를 빌었던 부적은 연말에 신사에 가져가면 신사에서 불태워준다.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을 때는 ‘소원을 들어줬다’고 느끼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배하러 간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에마(繪馬)도 참배 후에 써야 한다

에마(繪馬)도 참배 후에 써야 한다. 에마(繪馬)를 참배하기 전에 쓰는 것은 매너 위반이다. 에마(繪馬)의 쓰는 방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신에게 부탁하거나 감사의 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심해야 한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오미쿠지(おみくじ)도 참배 후에 뽑는다

오미쿠지(おみくじ)도 참배한 후에 뽑아야 한다. 오미쿠지(おみくじ)를 나뭇가지에 묶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많으면 나무도 약해지므로 묶기 위한 전용 대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묶도록 한다.



# 올바른 신사의 참배 방법

오미쿠지(おみくじ)도 참배 후에 뽑는다

오미쿠지(おみくじ)는 단순한 길흉 판단이 아니라 써 있는 내용에서 ‘신의 (神意)’를 느껴 그 후의 생활의 지침으로서 유용하게 사용해 가는 것이다. 가지고 돌아가서 가끔 다시 읽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다.





올바른  
참배  
방법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산문(山門)을 들어가기 전에 절을 한다

절터에 들어가기 전에 산문(山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절을 하고, 문지방을 밟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본당으로 가는 참배길을 걸을 때는 부처님이 지나는 참배길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지나도록 한다.



#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초즈야(手水舎)에서 손과 입을 씻는다

절에서도 신사와 마찬가지로 초즈야(手水舎)에서 손과 입을 씻는다. 씻는 방법은 신사와 똑같다.



#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 향각(香閣)에서 연기를 쐬다

향각(香閣)이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받아 몸을 정화할 수 있다. 몸의 나쁜 부분이나 아픈 부분에 연기를 대면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향을 구입해 공양할 수도 있다. 향을 낼 때는 사람이 단 촛불에서 불을 받으면 안 된다.



#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 새전함(賽錢箱)에 새전을 넣는다

본당 앞에 오면 먼저 절을 하고 새전을 새전함(賽錢箱)에 넣는다. 새전은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살짝 넣는다.



#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가슴 앞에서 손을 모아 절을 올린다

와니구치(鰐口)등 올리는 것이 있으면 조용히 한 번 올린다.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절을 올린다. 신사와는 달리 참배 시 가시와데(柏手)를 치지 않는다.





#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 분향(お焼香)을 한다

분향이 있을 경우에는 새전과 절을 올린 후에 분향을 한다. 분향을 할 때는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로 향을 집는다. 그리고 이마 앞에서 한 번 향을 든 후 향로 안에 떨어뜨린다. 이들 작업은 모두 조용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 합장하여 기도한다

가슴 앞에서 손을 모으고 절을 한다. 합장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소원은 하나로 한다. 또 여기서도 가시와데(柏手)를 치지 않는다.



#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고슈인(御朱印)은 참배 후에 받는다

절에서도 고슈인(御朱印)은 참배한 후에 받아야 한다.

고슈인초(御朱印帳)은 신사의 고슈인초가 아닌 절의 고슈인초를 사용한다.



# 올바른 절의 참배 방법

오마모리나 오미쿠지도 참배 후에 받는다

신사와 마찬가지로 오마모리나 오미쿠지도 참배한 후에 받는다. 절에서는 점괘를 읽은 후 전용 받침대에 오미쿠지를 묶어 부처님께 돌려드린다.





감사합니다